

인재 육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

글 | 김태봉 _ 창북중학교 과학교사 ki386@hanmail.net

매년 11월이면 어김없이 과학고등학교, 대학부설·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들로부터 과학영재 추천 의뢰를 받는다.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정해진 전형절차를 통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고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재학시절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나가 동상을 수상한 뒤 국내 유명대학 공대에 진학했던 A는 지금 법관이 되려는 꿈을 꾀다. 역시 과학영재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B는 의사가 될 작정이다. 과학영재교육의 꽃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나가 동상 이상을 수상했던 과학영재 가운데 35명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물론 의학도 과학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자연·이공계열로 진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우수 두뇌들의 과학 이탈 현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현장에서 과학교육의 일편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동안 과학영재교육에 참여했던 필자는 그동안 경험했던 우리 나라 과학영재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재는 일반 학생과는 지적·정의적 특성과 학습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 즉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영재교육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재의 육성·활용만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사회 발전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보통교육 체제하에서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타고난 잠재성을 사장당할 우려가 있는 영재 학생들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영재교육 지원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

우리 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은 우선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규정 또는 정책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이 조항들은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발달 속도상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입학 연령, 수업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치는 소극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다. 발굴된 영재 학생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는 진로체제가 확립되지 않아서 중도탈락하거나 이전의 영재교육과의 연계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손실이 크다. 또한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미흡하다. 영재교육 전담 부서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마련되어 있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교육부에는 장학실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업무와 함께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재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영재학생들은 특성에 있어서도 심한 개인차를 보일 뿐 아니라 특수영재의 경우, 개인 내적 특성의 개인차도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오히려 획일성이 강한 교육과정 때문에 영재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보다는 정서적 부적응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재를 위한 변별적 교육과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수준별 교육과정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영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한 영재는 조기에 판별해서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의 한계에 더하여 정확한 영재 판별도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단순한 지능검사만으로는 다양한 적성의 영재를 판별하기 어려우며 창의성 검사, 인성 검사 등의 표준화 검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영재지도 프로그램 및 자료 시설 부족

영재학생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생성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일반학교에서는 심화학습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의 활용도

부진하다. 현재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재교육용 프로그램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인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탐구 중심, 문제해결 학습, 산출물 생산과 같은 접근을 적용하기보다는 교사 중심이고 지식 중심이며, 또한 개방적인 학습보다는 경직되어 있고 강의 중심인 것이 현실이다.

일반 학교의 경우,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서조차도 4학년 이상에서만 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점에서는 재능 계발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재성의 조기 발굴, 조기 교육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초래하게 된다. 영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재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의 영재교육연수 이수 후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가 영재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립하고 영재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기에 영재아 판별해 체계적인 교육 도모

그 동안 영재교육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령을 만들고 시행체제를 정립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각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 비전, 그리고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 기준을 만들며, 이를 어떻게 진흥할까'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영재아를 판별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시의 진로체제를 확립하여 연계성 있는 영재교육을 도모해야 한다.

영재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학교급과 대상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 또한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학교 학생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방과 후, 주말, 주중, 방학중 등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양한 이질집단으로 편성된 일반학교에 다니면서도 충분한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학생이 영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지필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검사나 심층 면접 기법을 활용하여 영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선발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전국에 각 재능 영역별로 4~5개 정도의 영재학교를 고등학교 수준



과학에 지적호기심과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일수록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에 자주 접하게 해주어야 한다.

에서 국립으로 설치 운영한다. 기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영재교육을 할 만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은 영재학교로 지정·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영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지도교사에 대한 다양한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각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에서 영재교육진흥법과 관계없이 실시해 왔던 프로그램보다 틀이 잡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프로그램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범사례로 육성 보급하여 전체적인 영재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앞장서야

영재 학생들은 학습 속도가 보통 학생들보다 매우 빠르고 그들이 소화해내는 학습의 양도 많으며, 동시에 그들이 요구하는 학습 수준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일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은 영재들의 지적 특성이나 학습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영재의 특성과 요구를 모르는 교사 또한 영재를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더불어 일반 학교의 시설, 설비, 교육 자료도 영재들의 호기심과 지적 만족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한 일반 학교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창의적 인재의 육성은 더 미룰 수가 없다. 대학이 대학의 물리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적 인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몫을 담당한다면 우리 나라가 처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학도 선진 외국의 대학처럼 잠재력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영재들을 위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㉔



글쓴이는 충남대학교 물리교육과 졸업 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우주소년단 지도교사,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푸른하늘지킴이 지도교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